통권 10호
MAY 2026

1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1776연구소 봄맞이 벚꽃 나들이



4월 6일(월), 봄맞이 여의도 벚꽃 피크닉을 진행했다. 윤중로 벚꽃길을 함께 걸으며 만개한 봄 풍경을 즐긴 뒤,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보수주의자의 연애·결혼'을 주제로 한 영상을 시청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피크닉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함께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다.

독립신문 창간 130주년 기념 역사탐방



지난 7일(화), 독립신문 창간 130주년을 맞아 '독립문 나들이'를 진행했다. 최초의 민간 한글 신문인『독립신문』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문명개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역사탐방으로 꾸렸다. 자유역사포럼과 1776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독립문과 서재필 동상, 딜쿠샤 전시관, 이회영 기념관, 홍난파 가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근현대사의 주요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다. 특히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의 흔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독교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K-Con 보수주의 사상사 아카데미 12기 수료식



지난 23일(목), 'K-Con 보수주의 사상사 아카데미' 12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기수는 지방 수강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처음으로 온라인 동시 송출을 병행했으며, 거리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당 아카데미는 1776연구소 자문위원인 황성준 위원이 강의를 맡아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다음 13기는 올여름 개강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탄생 - 조지 워싱턴」 특강



지난 30일(목),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자유민주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선례를 세운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그의 생애와 성품, 신앙이 그의 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했다. 이날 특강에는 온·오프라인 포함 약 40명이 참여했다.

대표 인사말

지난 한 달 정신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바쁘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감사히 누리고 보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도 있지만, 부부의날('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의 21일)도 잊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부부의날도 엄연한 법정기념일이랍니다.

5월에도 1776연구소가 준비한 유익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7일과 14일 저녁에는 황성준 위원님의 '스파이 특강'이 있고, 19일에는 자유역사포럼 박명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명동 역사투어', 25일에는 제가 미국 제헌의회 개회 139주년을 맞아 헌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 연구소의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1776연구소 라운지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 지 벌써 만 1년이 되어서 이사를 해야합니다. 9호선 선유도역 인근으로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곳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6월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모일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6월 말 2주간 떠나는 견미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주세요. 예상하지 못한 유류비와 환율 인상 때문에 단원들이 낸 참가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름에 1776연구소와 세이청이 함께 주최하는 제2회 기독교 세계관컨퍼런스(7/20~21)와 KHC역사캠프(8/14~15)에도 관심 갖고 미리 신청해주세요! 1776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조평세 올림

1776 INSTITUTE
STANDING FOR FAITH, FREEDOM & FAMILY

May, in the History of Liberty

5월 1일 (1889)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각국 사회주의 정당 연합) 창립대회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시카고 노동자 참극을 사회주의 선전용으로 이용하고자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일(노동절)로 정함.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선전 의도를 경계하여 '법의 날'로 제정하였고, 이승만 정부도 한국의 노동절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바꾸었으나, 1963년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2026년 올해 다시 '노동절'로 바뀜.

5월 10일 (1948) 대한민국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첫 번째 총선거가 실시됨. 이미 국민들은 교회에서의 장로 선출을 통해 민주선거가 익숙했음.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95.5%를 기록.

5월 14일 (1796) 영국 시골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이 개발.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의 가벼운 형태를 주입하여 면역력을 생성하는 이 방식으로 이후 천연두 사망자 수는 3분의 2로 감소. 제너는 목사의 아들로,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헌신과 진리 탐구의 동력을 자신의 신앙에서 찾음.

5월 14일 (1948)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역 위임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 바로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 5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

5월 16일 (1961) 이날 새벽, 박정희 소장과 육사 8기생 중심의 장교들이 약 3,500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혁명를 거행, 2년 7개월간 군정을 실시함. (6개항 혁명공약: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음, 유엔 헌장 준수 및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 부패와 구악 일소, 민생고 해결과 자립경제 재건, 국토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과업 성취 후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 이양)

5월 16일 (1966)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웠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시작, 사구 타파를 명목으로 홍위병들이 수천 만 명을 죽음으로 내몸.

5월 18일 (1980)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등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

5월 20일 (325) 가톨릭 교회의 첫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 약 300명의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하고, 니케아 신경을 작성했으며, 부활절 날짜를 확정함.

5월 22일 (1947) 미 의회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승인함.

5월 24일 (1844) 전신 발명가 사무엘 모스가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볼티모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What hath God wrought?)"라는 첫 공식 전보를 보냄.

5월 24일 (1883)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브루클린 다리가 완공됨. 19세기 토목공학의 정수로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로 꼽힘. 그 해 미국을 처음 공식 방문한 조선의 보빙사(견미단) 일행이 이 다리를 보고 "어둠의 세계에서 와서 빛의 세계를 보았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함.

5월 25일 (1787) 필라델피아에서 7개 주 대표들이 정족수를 채우며 제헌의회가 시작됨.

5월 26일 (1940)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진격하는 독일군에 포위된 영국 원정군을 구출하기 위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시작. 6월 2일까지 온갖 형태와 크기의 배들이 20만 명의 영국군과 14만 명의 프랑스 및 벨기에 군인을 영국 해협 너머로 실어 날랐음.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배운 것들 - 조지 W. 부시 대통령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에 대해 글을 쓰게 되어 참 기쁩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저는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그들이 지닌 자질들에 대해 읽으며 큰 위로와 영감을 얻곤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결단력, 해리 트루먼의 단호함,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의 낙관주의 등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은 ...

체스터턴의 극단적 제정신: 오늘 우리가 그를 읽어야 하는 이유

체스터턴은 1908년 저서 『정통(Orthodoxy)』의 서두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을 권하는 나의 유일한 변명은, 이것이 어떤 도전에 대한 나의 답변이라는 점이다. 형편없는 사수라도 그것이 결투에 응한 것이라면 들어줄만하다." 전형적인 체스터턴식 문장이다. 재치 있고, 기억에 남으며, 자기비하적인 유머가 있다. 책의 서두 두 문장 만으로 이미 독자를 완전히 매료시키고, 더 듣고 싶게 만든다. ...

5월 연구소 동정

황성준 위원 「스파이의 세계」 특강

5월 7일과 14일(목) 오후 7시, '스파이의 세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대중매체 속 이미지에 가려진 스파이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아프간·체첸 전쟁 취재와 모스크바 특파원 경험을 지닌 1776연구소 황성준 자문위원이 강연을 맡아 이야기를 전한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사무국(010-5949-1776)을 통해 접수한다.

서울 역사탐방: 명동편

5월 19일(화), 자유역사포럼과 함께 '서울 역사탐방: 명동편'을 진행한다. 영락교회를 시작으로 명동성당, 은행사박물관과 화폐박물관, 그리고 중국대사관 일대를 탐방하며 서울 도심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남산 케이블카 체험과 점심 식사를 통해 참가자 간 교류의 시간도 마련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적 공간을 직접 걸으며 자유와 근대 문명의 흔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비는 2만 원이며, 참가 신청은 사무국(010-5949-1776)을 통해 접수한다.

「미국 헌법의 천재성 - 1787년 필라델피아의 위대한 타협」 특강

5월 25일(월), '미 독립 250주년 특강: 미국 헌법의 천재성—1787년 필라델피아의 위대한 타협'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 헌법이 지닌 제도적 탁월성과 그 설계 원리를 조명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헌정 질서를 구축해 나간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자세한 시간과 참가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4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 O 은	김 O 은	만 O 국 제 학 교	배 O 호	양 O 진	이 O 운	정 O 아
권 O 운	김 O 종	문 O 아	베 드 O 센 터	염 O 영	이 O 은	정 O 용
권 O 현	김 O 준	민 O 나	변 O 연	원 O 슬	이 O 창	정 O 원
김 O 실	김 O 진	민 O 환	서 O 경	윤 O 옥	이 O 현	조 O 호
김 O 애	김 O 희	박 O 기	서 O 민	이 O 란	이 O 현	차 O 욱
김 O 연	노 O 스 더	박 O 기	서 O 현	이 O 빈	장 O	추 O 령
김 O 연	노 O 아	박 O 민	손 O 광	이 O 성	정 O 교	한 O 다
김 O 우	도 O 현	박 O 혁	손 O 은	이 O 영	정 O 슬	허 O 은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

문의: 010-5949-1776